

Arunabh Ghosh, *Making It Count: Statistics and Statecraft in the Early People's Republic of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360 pp.*

배상희†

국가와 통계, 그리고 비서구 사회주의 국가라는 방법론

과학사학자들은 통계학적 전문성이 오늘날과 같이 강력한 권위를 획득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추상적인 수학의 언어로 표상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을 창조하는 통계학의 힘은 국가 권력의 통치 전략으로서 연구돼왔다.¹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오늘날 보편적이고 과학적으로 여겨지는 서구의 수량적 통계학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사회주의 권역에서는 서구 통계학의 결함을 이해하고 대안적인 통계 방법론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또 다른 역사가 존재했다. 아루나브 고쉬(Arunabh Ghosh)의 책 *Making It Count*는 수리통계학에 반기를 들었던 초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학자들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서구 중심적인 통계학사를 새로 쓰고자 하는 도전적인 책이다.

* 글을 검토하고 투고를 권유해주신 임종태, 이두갑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shbae25@snu.ac.kr

¹ 수리통계학의 역사를 수학적 방법론을 통해 자연 및 사회현상의 우연성을 통제하게 된 과정으로 그리는 것은 아직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내러티브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Lorraine Daston, *Classical Probability in the Enlighte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Ian Hacking,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Theodore M. Porter, *The Rise of Statistical Thinking, 1820-199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Theodore M. Porter, "Chance Subdued by Science," *Poetics Today* 15:3 (1994), 467-478.

고쉬는 초기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통계적 실행의 역사를 정치지도자나 국가 계획 설계자가 아닌 통계 전문가의 “내부적 관점”에서 서술한다(7). 저자는 통계 전문가들이 남긴 미출간 원고, 서신, 회고록, 통계기관의 아카이브에 보관된 서류들, 구술사 인터뷰 등 여러 종류의 사료를 활용해 통계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일어난 탐구와 논쟁, 그리고 그에 따른 통계학적 실행의 변화를 재구성해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중국사학자들이 마오쩌둥 집권기(1949~1976) 동안 사회를 뒤흔든 캠페인성 정치운동의 시발점과 종결점을 준거 삼아 연대기적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면, 고쉬는 중국 정치사의 명확한 시기 구분을 따르지 않는 “지식 생산과 제도 형성의 과정 등이 지닌 자체적인 시간성”을 드러내겠다는 지향을 내세운다(9). 따라서 이 책은 통계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책이기도 하다. 고쉬는 자신이 분석한 통계학적 실행의 “불균질한” 흐름이 “기술적(technical) 고려와 보다 광범위한 국내의 정치적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닌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한다(7).

‘기술적(technical)’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상호작용한다는 설명은 과학사 학자들에게는 어쩌면 지나치게 당연한 전제이다. 그런데 왜 고쉬는 이 점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방점은 “상호작용”이 아닌, 그에 선행하는 기술과 정치라는 영역의 구분에 있다. 통계학자와 통계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신의 연구가 후자보다 전자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고쉬는 마오 시기에 대한 이전까지의 역사 연구와 달리 정치적 상황으로 모든 지적 실천의 변화를 설명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본 서평에서는 기술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고쉬의 연구가 새롭게 밝혀낸 사회주의 중국의 통계학의 특징과 역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쉬의 관점이 지닌 한계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먼저 고쉬는 1950년대 중국 통계학자들이 시도한 세 가지 주요 통계학 방법론을 ‘전면적(Exhaustive)’, ‘민족지학적(Ethnographic)’, ‘추계학적(Stochastic)’ 방법론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방법론들은 중국 통계학자들이 영미권 통계학에 대적할 새로운 통계적 방법론과 시스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0여 년간 서로 경쟁하며 공존했다. 책의 1부에서 저자는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이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 통계학사를 분석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설립 이전부터 중국공산당의 세력권인 동북

지역에서 새로운 ‘전면적’ 사회주의 통계학에 대한 학계 내부의 담론과 지역적 통계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했음을 보인다.² 1950년 4월 선양시에 설립된 북동 지역 통계국의 국장으로 임명된 왕시화(王思华)는 동북통계국 조직을 5배 이상 키우고 통계 문서의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상의 혁신을 이끈 주인공이었다. 왕시화 재임 시기에 통계국은 처음으로 연간 보고서를 출간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전문적인 통계학술지를 창간했다. 통계학자들은 이 학술 저널의 지면에서 통계 작업을 위한 절차 수립, 시스템 통합, 인력 양성 등 초기 제도화 단계에서 필요한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왕시화가 확립한 전면정기통계보고제(全面定期统计报表制度)를 통한 ‘전수조사(exhaustive enumeration)’ 시스템은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며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전수조사는 “경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통계 보고의 광범한 네트워크”를 통해 유관 데이터를 모두 수합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했다(41). 데이터 보고 체계는 풀뿌리 기초단위가 소속 사업장, 기업, 단체 등의 상위조직을 거쳐 이들에 의해 확인된 내역서를 통계국으로 보내는 경로와 기초 단위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직접 통계국으로 보내는 두 가지 경로로 이뤄졌다. 이러한 전수조사는 왕시화가 내세운 사회주의 통계학의 세 가지 이상향인 ‘광범화(广泛化)’, ‘전체성(整体性)’, ‘객관성(客观性)’을 반영한 것이었다. 전수조사는 특정 데이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광범’한 성격을 띠었고, 기초단위에서 시작해 모든 행정단위의 통계적 실행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전체성’의 성격을 띠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통계학은 소수의 경제적 이권에 봉사하기 위해 서슴없이 데이터를 왜곡하는 부르주아 통계학과 달리 결점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비판에 열려있는 ‘객관’적인 과학이라고 왕시화는 주장했다. 광범화와 전체성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를 빠짐없이 셈하는 전수조사야말로 “사회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감각”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통계학의 기반이었던 것이다(47).

3장에서 저자는 왕시화가 확립한 ‘전수조사’ 체계의 주요한 참조점이었던

² 이는 리취민(李卓敏)을 비롯한 중국사학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국가적인 통계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통계국이 설립된 1952년 이전까지의 통계학의 역사를 등한시했던 것과 차별화된다.

소련의 사회주의 통계학의 이론적 기반을 소개한다. 소련의 통계학은 자유주의 진영의 통계학과의 차별화를 꾀한 중국 통계학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었다. 소련과 중국 통계학자들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사상에 기초해 통계학을 특정 시공간에 위치한 사회를 분석하고 개입하는 사회과학으로서 정의했으며, 한 사회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그 사회가 위치한 특정 역사적 단계의 맥락을 반영하는 통계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야 한다고 이해했다. 때문에 보편적인 통계학적 방법론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들은 보편과학이 되고자 하는 서구 수리통계학의 방법론을 거부하고 세계를 불확실성과 ‘우연(chance)’이 가득한 곳으로 보는 확률이론 또한 거부했다. 확률이론을 대신해 소련과 중국이 선택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셈하는 ‘전수조사’였다. 확률이론이 계산상의 오류를 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근거했다면, 전수조사는 수학적 눈속임에 저항해 완전한 그림을 얻겠다는 포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고귀의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왕시화의 사회주의 방법론이 정확한 수량적 분석 대신 일화적인 사례를 중시하는 ‘민족지학적’인 마오주의 사회 분석 방법론과 뚜렷하게 차별화됐다는 점이다. 마오쩌둥은 “조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 인터뷰 방법론을 장려했는데, 이러한 방법론은 그가 1927년 후난성의 다섯 개 현과 1930년 장시성의 원우현(尋烏縣)에서 직접 농촌의 사회적 조건을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48). 조사회는 소수의 정보원을 선별해 그들로부터 지역공동체 내부의 역학관계, 결속력, 현지 상황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정치적인 변화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견지했다. 마오는 현장에 발을 딛고 인터뷰를 수행하는 개인의 주관성이야말로 객관적 현실의 기반임을 역설하며 정확한 수치적 데이터보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일화적 사례를 중시했다. 이러한 민족지학적인 방법론은 하나의 강력한 사례를 보다 넓은 사회적 사실을 표상하는 것으로 확대시키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왕시화가 내세운 사회주의 통계학은 서로 다른 지역의 특징을 수치적 데이터로 추상화하고,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사회적 현실 전체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마오주의적 방법론과 근본적인 긴장 관계에 있었다. 마오주의 방법론이 1949년 이후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한 선행 연구자들과 달리,³ 저자는 적어도 통계학계 내부에서만은 1950

년대 후반까지 왕시화의 전수조사 모델이 보다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통계학자들은 민족지학적인 마오주의 모델을 표본추출 방법인 ‘전형조사(典型调查; typical sampling)’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어디까지나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보조적인 수단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왕시화의 사회주의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동북통계국의 전수조사 모델이 이후 국가통계국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보인다.

4장에서 저자는 중국에서 수리통계학과 사회주의 통계학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학제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학술 저널의 지면상에서 펼쳐진 통계학계 내부의 논쟁을 통해 보여준다. 중국에서 통계학 교재를 최초로 편찬했던 중국의 1세대 통계학자들이 1952년에 이르러서야 후대 통계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 및 이들 스스로 행한 자아비판이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을 통해 저자는 실행상의 변화가 교육적이고 학술적인 담론의 변화에 선행했음을 강조한다. 즉, 통계학계 내부의 기술적 논의는 1949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 및 중국공산당이 이끌었던 여러 정치적 운동들과 일치될 수 없는 독자적인 연표를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학자들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 통계학자들은 평균과 지수(index number)라는 수리통계학의 기초 개념을 비판하고 대안적 계산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러한 연구는 중국 학자들이 서구 통계학에 대한 비판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이들의 논의 범위를 방법론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국한시키는 양면성을 가졌다. 방법론에 집중할수록 통계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책의 1부가 통계학계 내부의 기술적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책의 2부에서는 ‘국가’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2부에서 고쉬는 통계학의 전문가들 사이의 ‘경계 작업(boundary-work)’을 통해 정착된 사회주의

3 고쉬는 1950년대 마오주의 사회과학 방법론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한 연구로 다음을 꼽고 있다. Chiang Yung-chen, *Social Engineering and the Social Sciences in China, 1919-19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와 Thomas Mullaney, *Coming to Terms with the Nation: Ethnic Classification in Moder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를 제시한다.

통계학의 이론과 방법론이 실제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어떠한 제한을 가했는지, 그리고 통계학자들과 국가가 그러한 사회주의 통계학의 한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한다. 5장에서는 1952년 국가통계국의 설립을 시작으로 6년간 사회주의 통계학의 ‘철저한’ 전수조사 방법론이 요구하는 통계 시스템을 수립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수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기보고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를 과잉 생산한다는 점이었다. 복잡한 보고체계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데이터의 홍수를 생산해내 데이터를 정리, 분석, 연구하여 유의미한 지식을 만들어내기 어렵게 했다. 보고서의 남발 속에서 서로 다른 층위의 통계 단위가 각각 확보한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불일치를 수정할 효과적인 수단은 부재했다. 통계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관료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높은 목표의 탓에 걸려든 셈이 되었다.

6장에서는 사회주의 통계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다루고 있다. 고귀는 이러한 노력을 국가의 역량 강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국가의 무능(incapacity)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임시방편으로 해석한다. 1950년대 설립된 인민대를 시작으로 직업학교, 기술학교, 단기적인 추가 훈련 제도 등을 통해 통계 요원을 양성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나 급하게 마련된 교육적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한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었다. 결국 국가는 통계요원들이 독학을 통해서 스스로 필요한 전문성을 획득하라고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통계요원들이 열정적으로 독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사적 전략도 펼쳤다. 사회주의 통계학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이다.

3부에서는 불안정한 통계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 떠오른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대안”들을 소개한다. 반우파투쟁이나 대약진운동과 같은 사회전반을 휩쓴 정치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국 통계학자들은 전수조사와 유의 추출법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인도 통계학 연구소로의 견학이나 마할라노비스(P. C. Mahalanobis)를 비롯한 저명한 인도 연구자들을 중국의

로 초청하는 등 “비과학적”인 중국의 유의추출법의 대안으로 인도의 ‘추계학적’ 임의추출조사(随机抽样)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수리통계학은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8장에서 고쉬는 대약진운동 시기 ‘민족지학적’인 마오주의 통계학이 이전까지의 통계학적 논의의 싹을 자르고 지배적인 방법론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현대 중국을 분석하는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연구자들은 대약진운동 시기 발생한 대기근과 그것이 물고 온 1천5백만에서 4천5백만 명 사이의 죽음의 주요 원인으로 통계적 조작을 꼽는다. 과장된 생산통계와 조달비율 등이 비현실적인 경제성장계획을 세우도록 부추겨 대기근을 초래하고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고쉬는 조작된 통계 결과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한 잘못된 통계학 방법론에 주목함으로써 다시 한 번 엘리트 정치가 아닌 통계학자들의 학술적 논의로 초점을 돌린다. 1956년부터 통계학계 내부에서 전형조사라는 방법론이 전수조사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1958년부터는 마오주의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한 강조에 힘입어 거의 유일한 과학적 통계 방법론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민족지학적인 전형조사 방법론에 따라 소수 모범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됐고, 대신 이전까지 국가 통계학의 주축을 이루던 전수조사의 인프라는 축소됐으며 인도와의 교류 속에서 싹튼 임의추출법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통계학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방법론적 전환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적인 역량을 축소시켰고, 원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과장하는 작업이 오히려 장려됐으며, 중국에는 국가가 이러한 과장된 데이터를 단속할 역량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이 고쉬의 해석이다.

이처럼 통계학의 방법론과 시스템상의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고쉬는 대약진운동 시기 통계학의 “붕괴”를 이전까지의 통계학계 내부의 몇 가지 주도적 방법론들 사이의 부침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정치운동에 초점을 맞춘 기존 서사들과 달리 고쉬는 세 가지 통계학적 방법론의 사상적 배경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들에 관한 기술적(technical) 논의와 제도적 실행 속에서 각각의 결합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여줌으로써 통계학의 “자체적인 인간성”을 복구하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가 저자를 따라 통계학의 자체적인 역사를 보다 포괄적인 정치적 역사와 구분할 때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쉬가 채택한 ‘내부적 관점’의 장점이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은 책의 1부이다. 여기서 고쉬는 통계학적 실행의 변화가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과정에 선행해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마오 시기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역사적 동인일 필요는 없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책의 2부와 3부에서 고쉬가 분석한 사례들은 통계학의 자체적인 시간성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2부에서 고쉬는 국가를 통계 시스템으로 치환한다. “국가 계획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여겨진 통계 시스템의 결함은 곧 국가의 무능이 되고, 통계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무능을 가려보려는 안간힘으로 해석된다. 통계학은 대중적인 과학으로 재해석됐고, 통계요원들은 혁명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 노동자가 되도록 요구받았다. 통계학과 국가의 통치성이 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변화가 통계학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서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상하기까지 하다. 3부에서는 중소분쟁과 대약진운동과 같은 국내·외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 변동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도와의 교류 배경에 중소분쟁이, 민족지적 방법론으로의 급선회 배경에 대약진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자는 정치적인 변동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자신의 독특한 서술방식, 혹은 서술의 부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과 달리 정치적 상황을 중시하는 기존 서사가 “하향식 요소”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217). 그러니 독자는 저자가 자세히 소개하는 기술적 논의들이 통계업 종사자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정치적 상황보다 중요했는지 판가름하기 어렵다. 단지 정치적 요소 이외의 “다른 이유들”도 존재했다는 저자의 주장에 소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기술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와 통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대내외적 정치 상황을 등한시하는 “내부적 관점”이 특히 문제인 이유는 고쉬가 분석한 대상인 통계학이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 근대 국가들의 통치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가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진영의 통계학은 정치적인 성격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며,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에는 자유주의 진영과의 생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었다. 제임스 스콧(James Scott)의 표현을 빌리자면, 냉전 구도의 반대편에서 대립했던 두 진영은 모두 “전용(轉用), 통제, 조작” 등 “정치적 동기”를 위해 국가의 가독성(legibility)을 높이려고 했다.⁴ 고쉬 또한 “국가의 구성원과 영토, 생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국가의 욕망”이 통계학적 실행을 추동했다고 서술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통계학의 관계에 대해 스콧과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1). 뿐만 아니라 고쉬는 스콧을 이어받아 자신의 연구 목표 중 하나가 “사회주의 국가처럼 보기”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통계학과 임의추출조사로 대표되는 민족지학적 통계학에 대한 고쉬의 분석은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넘어 통계학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고쉬가 제시하는 문제가 방법론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방법론적이다. 만약 통계학자들이 전면적, 민족지학적, 추계학적 방법론을 “신중하게 혼용”했다라면 “중국 국가의 활동과 업적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7). 이러한 기술적인 해결책은 1950년대 중국 통계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을 통계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을 피해간다.

이처럼 기술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는 고쉬의 서술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계학이 대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했다. 고쉬가 자신의 연구로부터 큰 의미를 이끌어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사회주의 통계학의 철저한 전수조사 방법론의 실패로부터 오늘날의 빅데이터 기술의 모습을 발견하며 더 많은 정보가 저절로 의미 있는 지식을 창출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12-15).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어딘가 석연치 않은 이유는 저자가 1950년대의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적 맥락과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질서의 정치적 맥락에서 통계학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않고 오직 표면적이고 기술적인 유사성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귀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회주의 국가가 무엇을 보고자 했는지 이해해야 하

4 James Scott,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는 것이 아닐까? 중국의 통계학은 무엇을 보고자 했는가?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는 통계학을 각각 어떻게 다르게 활용했을까? 통계학자들은 결국 무엇을 보고자 했을까? 정부 당국과 통계학자들의 목표는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 1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 통계학자들은 통계학의 방법론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을까? 이처럼 이 책은 명쾌한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수많은 의문을 야기하는 책이다. 우리는 먼 길을 돌아 기술적인 요소와 정치적인 요소를 분리해서 서술할 수 없다는 과학사의 오래된 교훈으로 되 돌아왔다. 고귀는 서구적 기원을 지닌 수리통계학과 전혀 다른 비서구 사회주의 국가의 통계학 실행이 지닌 기술적인 면면들을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통계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로부터 나아가 저자가 서문에서 선언한 대로 서구 중심적 통계학의 역사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통계학이 서로 다른 지역의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